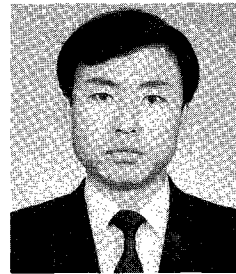


수입닭고기, 백세미출하물량이 육계값 좌우 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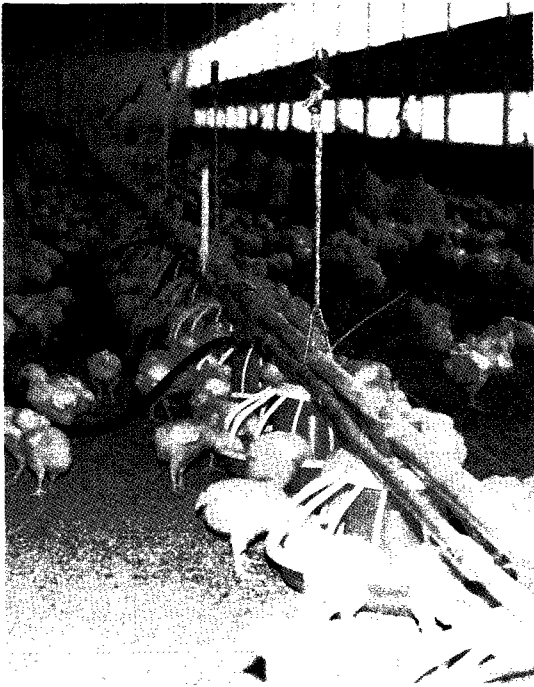


강재명
본회 총무부장

1년 전 악몽의 무더위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돌이켜 다시금 경기의 변화를 예측하지 않으면 안되고 육계인은 다시금 복입 추내지 닭값의 변화에 가슴을 설레게 된다. 지난해 복닭값이 사상 최고의 시세인 kg당 2,200원이 형성된 이후 육계업계의 신기록이 쏟아졌다. 이와 더불어 생산성은 밑바닥에 닿을 정도로 형편 없었으며 뾰족한 대응책도 없이 값이 좋은데 만족해야만 했다.

특히 '95년은 닭고기 수입개방원년으로 최소시장접근물량(MMA)에 의한 일정량이 국내

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으로 '95년 7,700M/T, '96년 10,400M/T, '97년 6월말 6,500M/T이 공매권 입찰방식으로 수입된다. 최근 높은 육계값의 영향으로 정부는 하절기 닭고기값 안정을 위해 거의 전량이 복이전에 들어오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공매권 입찰에서는 업계의 지대한 관심속에 계열업체, 육가공업체, 수입무역업체가 참여하여 6월말까지 수입해야하는 물량으로 미절단 742M/T, 절단 600M/T이 낙찰되었고 7월말까지 들어와야되는 물량으로 1차, 2차로 나눠 입찰되어 미절단



857M/T, 1,398M/T, 절단 600M/T, 2,941M/T으로 총 7,138M/T이 공매입찰되어 7, 8월에 시중에 집중 유통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절단 즉, 부분육 수입이 70% 정도 차지하여 국내경기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기과열에 따라 국내 생산량의 증가로 인한 불황을 겪기도 했으나 향후 전혀 예기치 못한 수입 닭고기가 국내 닭고기 가격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높다. 이러한 것이 어찌면 국내 육계인에게 경쟁력을 키워주는 계기도 되겠지만 수입으로 국내 닭값은 영원히 희생불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만 높고 또한 그대로 실행될 때 국내생산자의 기반이 무너지면서 국내산업은 죽고 그 부분을 수입닭고기가 채워나가는 상태가 반복될 때 서서

히 국내 육계산업이 고사해 가는 위기를 맞지 않을까 크게 염려된다. 이럴때 일수록 자신의 농장을 자신의 능력에 맞게 효율적인 시설현대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생산성을 높여가면서 육계업에 대한 애착심과 프로정신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근자의 육계경기를 바탕으로 금년 복춘후 육계경기를 예상하여 농가의 지표가 되었으면 한다.

1. 수급전망

금년 복입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6월 이후 병아리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종계계군은 작년도 중반기 입식물량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표1>.

'94년 연초 내지 '93년 4/4분기 계군중에 환우를 해서 복병아리에 많은 물량이 가담하게

표1. 육용종계(P. S) 입식현황

(단위:수수)

구분	'93	'94	'95
1	279,320	230,820	186,750
2	384,970	293,130	183,500
3	392,170	372,170	401,750
4	318,530	312,260	
5	232,910	274,820	
6	271,320	356,050	
7	429,550	368,700	
8	475,550	423,650	
9	456,930	373,320	
10	235,700	502,700	
11	128,800	362,000	
12	142,900	248,955	
합계	3,748,650	4,118,575	

표2. 육용실용계 생산잠재력

(단위:천수)

구분	'92	'93	'94	'95
1	31,614	37,471	31,886	29,143
2	32,141	37,116	32,137	30,031
3	33,270	36,828	34,194	32,546
4	34,905	37,559	37,188	34,527
5	35,769	37,865	38,189	37,710
6	35,025	36,967	35,884	39,544
7	33,803	34,442	32,424	39,582
8	32,345	32,549	29,694	37,223
9	32,778	31,737	28,421	34,524
10	33,325	32,188	28,880	
11	34,816	33,071	29,558	
12	36,916	32,815	29,150	
합계	406,707	420,608	387,605	

되는 것이 예년의 움직임이었으나 지난해 폭염으로 그 같은 계군들이 피해가 커 생산에 많은 차질을 빚었다.

그 반면 일명 백세미물량의 증가는 두드러졌다. 육용 수탉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금년같이 백세미 생산을 위해서는 수탉의 거래가 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까지 치솟았다.

표2의 육용계생산잠재력에서 보면 북병아리에 영향을 미치는 5월이후 급격한 병아리 증가가 예상되고 초복이전의 육계물량은 과잉이 크게 우려되며 특히 말복 이후의 육계물량은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병아리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1년 가까운 병아리값 호조를 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늘릴 수 있는 시간은 있었으나 생산성이 따라주지 못했으나 생산감축의 요인인 종계의 능력이 회복되고 전반적으로 작년도 7월이후 종계들의 생산성이 예년수준을 웃돌고 있는 것이 향후

병아리 생산 증가의 요인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유사계열 업체의 양산으로 병아리 입식수요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고 있어 어느정도의 과잉생산으로는 육계농가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무척 힘들 것으로 여겨져 실제 피부에 와닿는 통계상의 수치는 계속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 가격전망

병아리의 고가, 고가의 육계, 병아리 생산의 욕, 입추월기의 고조가 어우러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복답값을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각자의 생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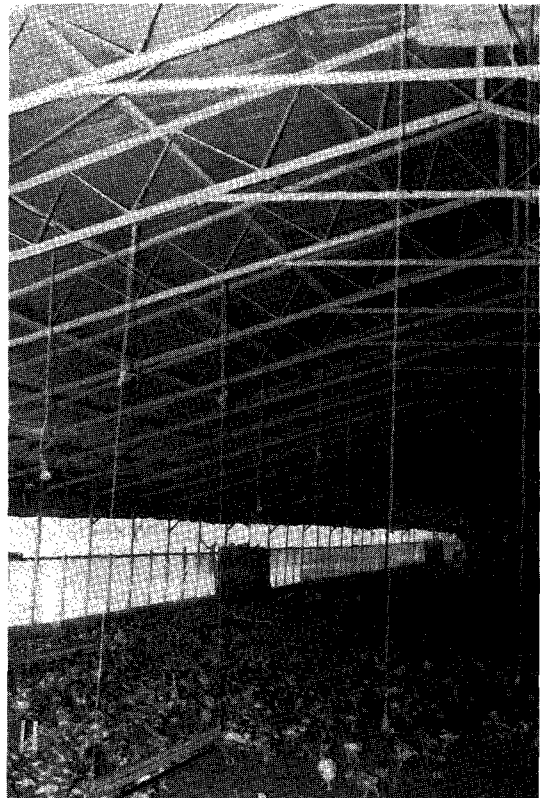


표3. 복이전 육용병아리 가격 변동표

일자별 년도별	3월 1일	3월 15일	4월 1일	4월 15일	5월 1일	5월 15일	6월 1일	6월 15일
95	600	600	600	400	400	400	500	500
94	300	300	330	300	200	200	270	450
93	100	100	200	50	100	100	50	300
92	380	380	370	100	180	180	200	200
91	300	240	280	320	350	180	200	230

*상기시세는 최저가 형성 시세임 ※'95년 5월 15일 이후는 예상치

표4. 복을 전후한 육계가격 변동표

일자별 년도별	4월 15일	5월 1일	5월 15일	6월 1일	6월 15일	7월 1일	7월 15일	8월 1일	8월 15일
95	1,400	1,400	1,300	1,300	1,200	1,200	1,200	1,100	1,100
94	850	950	1,000	1,000	1,000	1,300	1,700	1,200	1,300
93	820	920	770	1,020	1,420	1,520	1,520	1,220	1,420
92	920	1,120	1,170	900	580	720	820	1,070	920
91	1,330	950	900	800	620	470	700	1,020	830

*서울근교 하이kg당 시세임, ※5월 1일 이후는 추정예상치

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시기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기변화, 국내외의 경기동향, 6월 지자체선거 및 백세미 생산량 추이 등 양계내적인 요인보다는 외적인 요인이 더욱 영향을 크게 미칠 것임을 분명히 해두고 양계 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가격예상을 해보고자 한다. 앞서 자료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단 복병아리 생산은 수요를 충분히 따를 수 있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최근의 육계업계의 흐름을 볼 때 입식열기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병아리 값은 400원을 전후한 최저점으로 복병

아리 입추기인 5월 중순이후는 서서히 재상승할 조짐도 예상된다. 이같은 분위기로 종계·부화장에서는 복병아리 생산을 위해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병아리 생산증가에 힘쓸 것으로 보여 일반의 예상보다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3, 표4의 복을 전후한 육용 병아리 가격과 육계가격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최근 몇년사이 병아리값의 거의 10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95년도 병아리값의 폭등을 잘보여 주고 있다. 병아리값 최고 상한선이 한 단계 올라간 계기가 된 것 같다. 육계값 또한 변화의 폭은 상당히 큰 편이나 1,500원 시세가 자주 눈에 띄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육계생산기

반의 취약점을 보여주고 있다.

병아리 가격과 육계값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복병아리 입추이전 부터 병아리값이 상승하면 복닭값은 상당히 어려웠음을 보여주고 반대로 복입추 이전에는 병아리값이 나쁘다가 복병아리부터 상승했을 시는 전반적으로 삼복의 닭값은 상당히 회복되었음을 볼 수 있듯이 금년은 작년도 하절기 폭염피해가 있긴했지만 복이전에 600원대의 시세에서 400원까지 떨어졌으나 생산비선을 크게 웃도는 초호황의 시세를 형성했던 점을 볼 때 예년의 경우와 같이 복에는 오히려 육계값이 꺾이는 현상이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특히 수입닭고기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판되기 시작해 7, 8월 집중적으로 방출될 때 심리적 영향으로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근년 하절기 기온이 예년보다 낮을 것이란 예보가 있어 이점 또한 악재로 작용하리란 전망이다. 그러나 6.27 지자제 선거 이후 곧바로 복과 이어져 신장이 지속되고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회복 또한 호재로 작용하리라 본다.

이상과 같이 호악재 요인이 상존하지만 필자가 느끼는 육계값 전망은 생산자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하고 생산비선은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금년 복경기를 맞지 않을까 예상된다. 말복 보다는 초복쪽의 경기가 생산량 측면에서 다소 좋을 듯 싶다. 복입추의 정석은 경기를 쫓기 보다는 계획된 입추에 의거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상황변화에 따른 출하시기 선택이 중요하므로 희망을 갖고 입추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기배**

미등록 부화장 및 종계장 고발센터 안내

- 대 상 : ○미등록 부화장 경영자
○미등록 종계장 경영자
○미검정 종계 유효기간 초과 종계 보유자
○불량종란 또는 불량초생추 생산·유통하는 자
- 방 법 : 서면 또는 전화(신분 보장)
- 조 치 : ○접수후 사실확인 위법사실 확인되면 당국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
○결과 월간양계 및 양계관련 매체에 공표
- 접 수 :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5
전화 : (02)588-7651, Fax : 588-7655